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再開議會에의展望 (一)

三十億四千萬圓이라는 未曾有의 膨大한 豫算을 둘고 今日부터 再開되는 議會에 臨하는 政府는 政黨의 反政府的 態度의 强化와 아울러 相當한 苦戰을 覺悟치아니하면 아니될것이 豫想되다 首相은 容易치 안흔 政黨의 强硬潮流를 緩和시키기爲하야 議會再開前 兩黨總裁를 訪問하야 協力을 要求할것이라하드니 議會政治의 本然한 意義를 沒却한다는 非難을 두려워함이지 議會解散도 不辭한다는 强硬態度로나오던지 이것을 突然中止하고 再開議會에 政府自身의 信念을 가지고 臨하게되엿다. 政黨側도 幹部級에서는 少壯派의 倒閣的氣勢를 抑制하야 될수잇는대로 自重하는 態度를 取할듯한 꾸ㅡ즈를 가젓섯스나 十九日에 이르러 政民兩黨의 强硬分子가·聯絡하야 政民兩黨大懇親會를 開催하야 倒閣的氣勢를 올리는等 首腦部의 自重論을 牽制하는 形勢를 致하얏슴으로 再開議會가 順風裡에 進行되리라는 樂觀論은 消散케되엇다

二

그러면 政黨側에서 政府의失政을非難하는 重要焦點은 무엇인가? 二大政黨中에서 反政府色彩가濃한 政友會總裁가 政友會大會에서한 演說의 骨子를要約하여보면 大體左記 二點에 歸着식힐수잇다 廣田內閣이 첫재 三十億四千萬의未曾有의 大豫算을提出한것은 現內閣이 現下國情을準戰時統制下에 잇슬것이라는 獨斷에 甚한것으로써 國防이 重要視되는것은 國家의 發展上 正當한 事態가 아니라는것이다 둘재는 現內閣은 日中日蘇外交의 調整에 全然失敗하고 나아가日獨防共協定의 手續上의 缺陷에 依하야 歐米諸國으로하여금 猜疑의 念을 더하게하야 國民的感情을 疎隔케하는等外交의 失敗의責任은 厭然하다는것이다. 民政黨과및反政府態度가 가장 强硬한 小會派의 態度도 大體이線에 沿하고잇는것이다

三

이에 加하야 廣田內閣과 政黨과의間隙이 버러진것은 財政問題와外交問題以外에 憲政의運用에關한 根本意見의不融和라는것이잇다 過般議會制度調查會와 寺內陸相의 懇談으로 議會權限縮少問題는 爲先解消되고 廣田首相도 屢次 憲政尊重을 聲明하얏다 政黨은아즉도 寺內陸相이 軍部의一部潮流에 牽制되고 廣田首相이도한 寺內陸相에게 牽制되는날이잇슬것을 疑心하고잇는듯하다 黨人의感情을 가장剌戟하고잇는點이 憲法上의 根本問題임으로注目할點으로 이結果 政黨은 反撥的으로憲政의 大道에서 政府와 一戰할 氣魄을 一層顯示하려는 傾向이잇다 그러나 政民二政黨은 現政府에 모다 閣僚를보내고잇고 政府도 議會解散을 斷行하야 政局을더욱 混亂케할것은 眞心으로는 回避하려는態度임으로 結局은 政黨과 增稅案에잇서서는 一部의修正, 電力案과 義務敎育案等은 犧牲을식히면서라도 어느程度까지 政黨의面目을 세우면서 議會를無事히 通過할것이라고 豫見되는바이다 그러나 政民兩黨의 强硬派가 大勢를리ㅡ드하고 小會派까지 이에合流케되는때에는 再開議會는 일[illegible]

議會開幕劈頭에 白熱的論戰展開?
各派、政府의失政을論難하고
尨大豫算의影響非難

【東京電話同盟】風雲이念한 第七十議會는드디어 今二十一日自里의 憲政擁護에서 開會되다 舊臘二十八日休會에드러간 以來政府及 貴衆兩院各派는 特히 休會가끗난議會의 白熱的論戰에備키爲하야 各各 秘策을 練磨하야 戰備全然完了되엇는데 本議會야말로 二、二六事件 直後의 超非常時局을 背景으로하야 成立된 廣田內閣의 過去一個年에 亘한 施政에對하야 嚴正한 批判檢討의 메스를 加하는同時에 三十億四千百萬圓에 達하는 空前의 尨大豫算案을 始하야 增稅를含한 中央地方을 通한 稅制改革 電力國營 義務敎育年限延長等의 重大案件이 山積하고더욱 外交問題에 關하야는 政民兩黨을 爲始하야 其他의各派가 그 失敗를 論難하고 다시 最近一般物價의暴騰은 尨大豫算의 影響이라하야 非難되고 國民生活의 安定이 叫呼될에니르고 政民兩黨을爲始하야 貴族院各派에 至하기까지 今回의 豫算案에對하야는 忌憚업는 檢討를加하고 歲入出共히修正을 加할것이라論이하고잇슴으로 議會今後의 推移는자못 重大視되에至하얏다

그리고 再開第一日의 貴族院은 午前十時本會議를열고 廣田首相의 一般施政方針 有田外相의外交方針演說이잇고 그終了를기다려 貴族院各派代表質問의 第一陣을펴고 研究會의 渡邊千冬子가外交及 憲法政治의 擁護및 敎育問題에 關하야 首相外相에 對하야 槪論的인 質問을하고 繼續하야 第二陣에 阪谷芳朗男(公正)은 外交財政 兩問題를 드리 政府에秘政을 糾彈하고 時間이 許하면 交友俱樂部의 小久保喜七氏가 外交問題 議會權限縮少問題人權蹂躪問題에 關하야 首相外相法相內相等에게 質問키로되엿다 또衆議院에서는同日午後一時부터 本會議를 열고 貴族院과 同樣으로 首相、外相의 演說이잇고 다음馬場藏相 財政方針의 演說을 行하고 다음 民政黨의 櫻內幸雄氏가 衆議院에서의 國務大臣의 演說에 對한 質問의 先陣을펴고 다음政友會의 濱田國松氏가 政府의內治外交兩方面에 亘한 失政을剔抉하고 官僚獨善主義에 痛擊을加하고 다시川崎克氏(民政)財政問題를 드러 馬場藏相의 無軌道財政을 論難하고 植原悅二郎氏(政友)는 外交問題에 對하야 質問하고 政民兩黨이 다政府의 諸政策에 對하야는 嚴正한態度로써 臨하고 秘政은 어데까지 糾彈하고 모든機會에 政黨更生機運을 釀成코저하고 잇슴으로 本格的論戰의 展開에 件하야政府는 幾多의 難關에 逢着할러로 今議會의 前途는 俄然險惡을 許지안는바가잇다

蘇滿郵便解決

【新京九日發同盟】[illegible] 의 [illegible] 하야는 滿洲國側으로부터 [illegible] 에 對 [illegible] 交涉中이엇든바 十九日 外交部入電에 依하면 [illegible] 十八日夕 [illegible] 回키지의 [illegible] 交涉하야 [illegible] 케되엿다

政友會大會宣言
外交國策確立을高調

【東京電話同盟】國際關係는 變轉을極하야 世界政局의 底流에 不安을 抱藏한此際 東亞政策을 確立하고 東洋民族의 聯繫를 實現하야써 世界平和의 指導權을 掌握할것은 實로我國의 建國精神이 아닌가 我黨은 曩者 四大政綱을揭하야 國策의基礎로 하고 特히 外交國策의 實力確立을 急務로하야 屢次政府에進言한 眞意는 全然이에잇다 그런데 現內閣의外交는 認識을그릇치고 機宜를 失하엿다 日中國交는 調整을 策하엿스나 도리혀 欠隙을 招來하엿고 日蘇關係는 親善을 求하다가 逆으로 反感을 誘致하엿다 大槪外交多惑케하엿고 官僚 獨善의秘密外交를 金科玉條로하야 近代國家의 國民外交에 徹底치못한 結果를 招來하엿다 日獨協定의 本旨가 國家組織을 破綻하는 코민테른 防止에 잇슴에도不拘하고 도리혀 列國으로하여금 右翼獨裁國家의 形式을 疑心케하엿슴으로 外交失敗의 責任은 斷然免치못할것이다 現內閣은 庶政一新을 標榜하고 日夜努力하나 內閣自體의 指導原理가업고 專허 外部의 推進力에 이끌리여 國民經濟에 副치안는 三十億四千萬圓이란 尨大豫算을 編成하엿다 이 實로經濟實力의 自然的要求인가? 國民生活의 合理的負擔力을 考慮한 案인가? 準戰時體制의 獨斷的 推論에 끌리어 編成된 同案이 產業振興을 妨害하고 國民生活의 脅威를 現實하게되면 逆으로 國民의 怨嗟을 醸成하야 國民精神力의 弛緩을 招來할것이다 現內閣은電力國家管理案、義務敎育延長案을 가지고 庶政一新의 第一이라고 稱한다 그러나 官僚本位의 獨善經濟는 有害無益하다 國民의 敎育的 水準을 高揚함은 吾人의 宿論이다 다만年限延長과內容充實은 其本質을 달리한다바 아호로 我國은 內外의 情勢에 鑑하야 擧國一致로 各其平等의 힘을 傾注하야 全體共同 民族發展의 大目的에 向進하지안코면 안될것이다 그런데 官僚는 獨善에 拘泥되고 軍部는 優越感에 넘처 他를 排하고 國家機能의 萬般에 關與하려한다 이弊害가 漸次增長할時에는 마침내 民意의 힘을 阻止하야 立憲政治를 否認할지라도 其實은 專制의 弊를 誘致할것이다 如斯한것은 一君萬民의 國本에 背馳되고 文武共存의 聖旨에 反할가念慮된다 我等은 玆에 立憲精神에 則하야 斷然히 議會政治를 强化하고 一路更生의 新機軸를 開拓하야 夙夜精勵 皇恩에 奉報하고 國家에 奉仕하려는 것을 敢히 宣言한다

民政黨首腦部
出身閣僚와懇談
黨內事態險惡化로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은 議會再開를 앞두고 外交問題打開[illegible] 革新[illegible] 現內閣에對한 反對[illegible] 하게되엇스며 特히少壯派는 首腦部의 自重的態度를 넘어서如何한事態를 [illegible] 할수업는 形勢에잇는데 一方이에對한 政府의 意向도 漸次政黨과對立的意識을 明確히하고잇는現狀에 鑑하야 町田總裁는十九日午後七時부터 牛込私邸에서 永井拓相、小川鐵相의 兩出身閣僚를 招致하고縣內小泉南院內外交部總務 [illegible] 을 모아놋코 여러가지로 [illegible] 하야 [illegible] 木 小川兩相으로부터 政府側의 [illegible] 方針과 [illegible] 의 [illegible] 에對하야 說明을 聽取하고 [illegible] 小泉各氏로부터 黨內의 實情을 詳細說明하엿다 即 「外交問題에 對하야는 首腦部의 愼重한 態度를 反映하야 幹部會에잇서서도 再開議會劈頭政府의 說明을 聽取하야 妥當하다고容認할수업는 境遇에는 强硬한態度에 나가더라도 늣지는안라고 決定하엿는데 그後黨內情勢는 急激히 惡化하야 如何한政策을 招來할지도 모르게되고 도리혀 이에 對하야는 總裁·永井·小川兩相으로 [illegible] 이 非常한 決心으로써 派遣을 要望하고잇스므로 反對意向이 强한 總務委員會에서도 何等決定을 지우지못하고 政務調查會에서도 不穩한 空氣가 움기지 아니치못하게되엿다 首腦部는 非常한苦境에 서게되엿다 그外 稅制改革에 對하여는 新稅種目에 對한 反對가 猛烈하야 最近物價高에 對한 反映하야 더욱膨脹財政에 對한 反對는 漸次昂揚하고잇다」는 旨를 告述하고 여러가지懇談을거듭하고同九時지나 會談을 終了하엿다

[illegible] 最近政府는 外交方面의 反對空氣에對하야 解散論으로써 脅威하고 [illegible] 强硬한態度를 示하고잇는데 如何한態度는 政黨을 [illegible] 刺戟할뿐이다 이點에對하야 政府의 意向은 如何하나

고 [illegible] 에 對하야 [illegible] 廣田首相은 單只 解散으로써 政黨에對하야 反對的態度를 取하는것은아니다 다만 現內閣의使命인 庶政一新政策의 實現에對하야는 어데까지던지 이를 貫徹하도록 希求하고잇스므로 이點을 저와가리 傳한 것이라고생각한다 이點에對하야 自己들은 首相과 同意見인데 政府의實現을 企圖한政策에 對하야는 어데까지던지 貫徹을圖할러이므로 黨에잇서서도 充分히考慮하야 만흔援助를바란다

포크라니츠나驛과烏蘇里鐵道間
連絡을一時停止
蘇極東鐵道部長、哈爾濱鐵路局長에게通告
蘇從業員侮辱햇다고

【莫斯科十九日發同盟】蘇聯極東鐵道部長렘베르氏는 交通人民委員部命令에基하야 哈爾濱鐵路局長에對하야 常態回復까지 포그라니나야驛과 우스리鐵道間의 連絡을 一時停止한다는旨를 通告하엿다 라스通信은 停止의 理由로 滿洲國警官이 最近포그라니나야市와 크로데코보間의列車에 勤務하는 蘇聯鐵道從業員에對하야 頻繁히 侮辱暴行을 加하엿다고稱하고잇다

中央과西安側의
政治的解決失敗
蔣氏、西安代表에最後案提示

【上海二十日發同盟】去十七日來 奉化에서 蔣介石氏와 協議中이엿든 西安側代表米春霖、鮑文樾、李志剛三氏는 西安時局解決에關하야 蔣介石氏가 最後案을提示하엿스므로 二十日午後再次飛行機로 西安에赴하기로되엿다 三氏는途中南京에 들리여 中央要人과 折衝을行할豫定인데 西北側要求는 陝西甘肅兩省을 特別地區로할 要求를斷行하라는點에 잇는데 이에對하야 中央은이要求는 絕對排擊의態度를 取하기로 하엿슴으로 政治的解決의길은 이미斷切되엿다는 意見이一致되엿다

伊商船拿捕
事態惡化

【倫敦十九日發】발렌샤政府는十九日爆彈其他軍需品을 滿載하고 西班牙近海를 航行하고잇든 伊太利商船一隻을 拿捕하엿다고傳한다 발렌샤政府가 即時釋放치안는限 伊太利政府는 파로스號事件에對한 獨逸政府의 行動과가티 即時報復手段을 取할것이 아닌가고推測되다

辭令

任總督府道警視(七等) 慶北道警部 日高勇

命忠淸北道在勤 慶南道警部 小島孝
任總督府島司兼總督府道警視(七等)
命慶尙北道鬱陵島在勤
補鬱陵島警察署長
道警視(忠北警務課長) 山村仁策
命慶尙北道在勤
道司兼道警視(鬱陵島) 余座豐次郎
依願免本官並兼官
道警視(慶北高等課長) 木村亦八
依願免本官

아라비아海
一週續航記 ⑧
歐洲가는길에
白麟濟

『고롬보』를 떠나『아덴』에 니르는 『아라비아』海橫斷航程이날수로 一週日 滿六晝夜續航을要하는 歐洲航路中가장 긴續航區域이오 또 所謂印度洋波航의가장 特色잇는 船中生活이 展開되는 期間인듯하외다 船員이나 乘客이 모다 無涯大洋에 羅針盤에위노흔 큰호텔가튼 배를띄워노코는 當分間 陸地人間文物과는 相關이업다는 心理가되여 悠悠自適하는 態度로 船中生活自體를 즐거히하려듭니다 그럼으로 船客의 無聊를 慰勞하라는 여러가지 特別奉仕의 意味로 主催되는 興行이 이엿새동안에 잇게되얏습니다. 陸地에게신이들에겐兒戲와가리 우숩고부질업는것이 船客된 이들의겐有關히 깃붐이되고 위로가됨이特色인가합니다 이엿새동안의 簡單한 紀行을써서 船客生活의 眞面目을 알고십어하시는 兄弟에게 傳하랴하나이다。

十一月三十日 午後五時 天氣晴朗 西風이稍强한데 칸듸遠行을 急히맛초고 땀을홀리며歸船하자 이여出帆前三十分을알리는쟁소래난다 同船一旬에相當히 親分이두터워진 大阪某商會靑年主人一行二人이 고롬보서 下船함을 作別하노라고 란치와 本船새에서 한가치를흔든다 손을흔든다 하참센치멘탈한씨ㅡㄴ이 잇섯을뿐이오 新嘉坡까지의 여러港口에서 恒常보던 테ㅡ프를던지고 擾攘聲로 놉이날리는 各色奏樂을하고 旗幟를날고 하는 出帆時의 光景을 볼수업는 寂寂한 出港이엇다。 雖工과巨額의 費用과規模의 宏大함으로 築港士를 가운데선 相當히 有名하다는 大防波堤의 香港門을 徐徐히 빠저나와 兩船은 멀리 落陽을 바라며 一路西航을 始作하얏습니다 바쓰벗이의 案內로 每日午後六時의 日課인 朝湯沐浴을하고 나니 오늘終日約二百七十里往復의 칸디行長距里 뜨라이브에 勞困하얏던 心身이爽快하야진다 빨가버슨 채로船室에서 扇風機바람에 맘것 시원한 納涼을맛보노라니 어느새 食堂에갈準備를알리는奏樂이 들린다 이무덥운데다시 正裝을 차리기가끔찍이실혓스나 적어도 저녁밥만은 正裝例입에 엇지하랴

午後七時에 相當히 鄭重한招待狀으로된 떤네를 맛치고 遊步甲板에 나가指名鐫列해노은 安樂椅子에 몸을던지니 船尾東天에 銀光이 燦然한 月色이 天涯相接하야잇는데 蕭風이 徐來하고 雲月이 明朗한景致가 果然壯美한 感興을 難禁할地境이다 이웃고 同感四五人이 산데키에 올라 冷麥酒를마시며이 印度洋의 月夜를 앗겨하는듯이 밤깁도록 거닐엇다 萬若한히 詩書쓰는 工夫가 잇섯던들 今夜의 感興을 백分之一이라도 傳하여드릴수가 잇섯을것을 早朝에 벗이가 電報하잣을 傳한다 눈을 비비며 바라보니 春園이 어제치신意味기픈 고맙고 반가운 電報다 내가 어제 고롬보에 다어 칸디求景을 갓을것을 想像하고친것이 分明하며더구나떠난後 첨으로 밧든故國靑棗이니 突然히 깃브고 情다워서 再三三덧읽엇다 배라고 멀리가는이에게 電報를 주는것이 무엇보다도고마운생각이잇다

十二月一日 오늘도 天高風晴한 하로를 例와가리 早朝六時頃에 船室에 가저오는티ㅡ로스트를 먹고 寢衣대로 悠悠히『로ㅡ민트』를 室內에서 畢하자入時半의 朝飯을 미소시루 오사시미의日本式으로 맛치고 니여四人作伴하야데키골프를連 두차례를하면서보이가 鄭重히 차자다니며갓다주는 한곱부의 부이온(말근肉汁)을마시고 午前十一時에멘버二人이 喫煙室에서 英人船客미스터 국쓰氏에게 英語會話를한時間동안배우고 十二時半에 午餐을맛치고는 午後三時까지 船中慣習에依하야 데키에나 자빈이나 其他어되나 서늘하고 그늘지고 조용하고 安樂椅子의設備가잇는곳을차저 午睡를試하엿다잠이깨자 보이가 가저다노흔 茶菓를 한뒤에 午後四時의티ㅡ플엘리는 奏樂에 食堂에 모혀 茶菓를 먹으며 談話를하거나또 食堂에 가기가 옷이나무엇으로 성가신탓으로 가는손이 적음의로近日은 食堂보이가 茶菓를小車에실어가지고 一一히차저다니며勸하는것을 거닐든자리에서바더먹는다 그리고는또 體操나遊戲나 몰ㅡ스웡잉이나 맘대로끼리끼리놀자저서 놀다가 午後六時에 沐浴을 하고나서 니여夕飯準備를하고 甲板에 거닐면서每日한번식 돌려주는 라되오 뉴쓰를 聽取하다가 끗나면 大槪는단정데키에 모혀 奏樂을듯거나단쓰를하거나 求景을 하거나 밤이깁도록 冷飮料와 산도위치의供待를 바다가며 청잔코爽快한社交的 遊興을 하는이가 만코 그러치 안호면 끼리끼리社交室에 모혀 피아노를치고 레코드를 드르며 談話를하야 深夜에及하는이도잇고 또 어떤때는 빠ㅡ나 喫煙室에 陣坐하야 밤깁도록 麻雀 라이쓰노리로時間을 보내는이도잇다 나는 레볼엔머旅氏와가리 東京서오는互 8·M三夫人네를 中心으로한 一團을 相對로 처음배운 랑보를 추어보앗다 船中에서 딴쓰工夫하기가 比較的 손쉬운것이 이러한 가벼고 흥이는 雰圍氣가운데 잇는터인가보다

義務教育法案을
樞密院에御諮詢

【東京電話同盟】樞密院에서는卄日 宮中에서 本會議散會後 平生文相으로부터 政府가 今議會에 提出할 義務敎育法案內容의 說明을 聽取하고 樞府側만이 남어 協議한結果 本案은 勅令은 아니나 明治大帝의 『御沙汰書』에 御諮詢事項으로 定하엿신 敎育의 根本에 關한 法令에 該當함으로 樞府에서도 愼重審議함이 大帝의 大御心에 奉副하는 所以이므로 樞府의 御諮詢을 奏請할것이다 라는 意見을 政府에 要求하기로 決하엿다 따라 村上樞府書記官長은 午後三時 東務所에 次田法制局長官을 招致하고 이뜻을 傳達하엿다 政府側에서는 御諮詢奏請에 對하여는 別段異議가업는 모양이므로 近近閣議에 諮하야 上奏御諮詢의 手續을 取할터이다。

夕刊後市況 二十日

◆朝取短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八四四〇	八四四〇	八四四〇
朝新	二四七〇	二四七〇	二四二〇
鍾新	一三二七五	一三二七五	一三二三五
大新	九六六〇	九六八〇	九五五〇
東新	一五九六〇	一六〇〇〇	一五八七〇
日產	八三二〇	八三五〇	八二九〇
同新	—	三五二〇	三四八〇
日鑛	一三六〇〇	一三六〇〇	一三六〇〇
同新	—	八一五〇	八〇九〇
朝石	—	二八五〇	二八二〇
日魯	七〇〇〇	七〇〇〇	七〇〇〇
同新	—	—	—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一五九八〇	一六〇五〇	一五八三〇
日產	八三四〇	八三四〇	八三〇〇

◆大阪短期◆

	後引	高價	低價
大新	九六四〇	九七四〇	九五二〇
鍾新	二三七〇〇	二三八三〇	二三三三〇
日產	八二九〇	八三三〇	八二九〇
東新	一五九八〇	一六〇三〇	一五八七〇
日鑛	一三五九〇	一三六七〇	一三五七〇
淺新	一三三三〇	一三二七〇	一三二三〇
帝人	一二四三〇	一二四四〇	一二三六〇
同新	九四七〇	九五〇〇	九四四〇
日曹	九八四〇	九九〇〇	九八四〇
日魯	六九九〇	七〇五〇	六九九〇
鋼管	一一〇三〇	一一〇九〇	一一〇三〇
郵船	七二三〇	七二六〇	七二三〇
東電	七二五〇	七五三〇	七二五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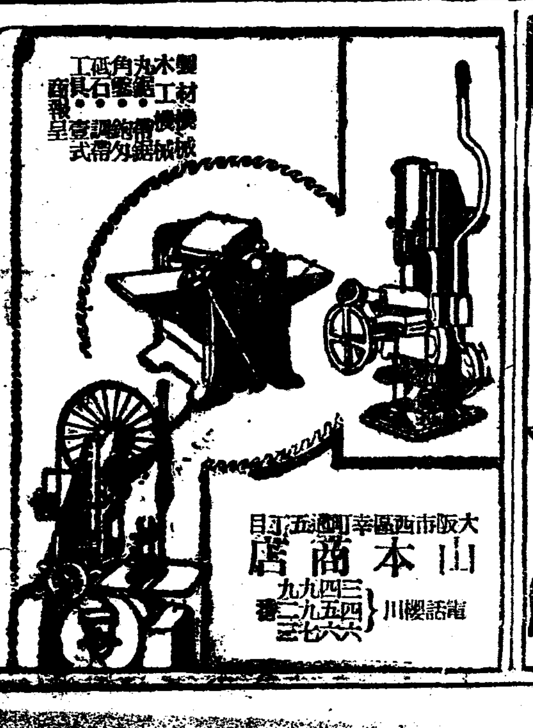
◆大阪短期氣配◆

大新	九六四〇(不變)
鍾新	二三七〇〇(不變)
日產	八三〇〇(一〇高)
東新	一六〇〇〇(二〇高)

◆橫濱生糸後引◆ 當限 九二二〇〇 先限 九一一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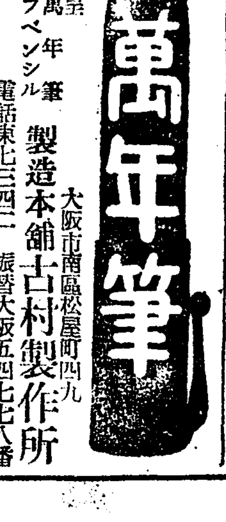
◆福井人絹後引◆ 當限 八六一〇 先限 八二八〇

頭腦疲勞恢復藥
勉強
試驗期의 頭腦過勞에
ノーシン
工夫를하는中에 머리가압호고……흐릿하며……氣分이 조치못하고……마음이燥急해서애를쓰고……이러한狀態로 過度하게工夫를하여도結局充分한記憶力이나 思考力을發揮할수는업다 그것은 頭腦가極히疲勞함을경정하는때문이다 곳頭腦疲勞恢復藥을먹어야할때다
노ㅡ신에는 頭腦의 疲勞를깨끗이 恢復식히는獨特한 藥効가잇다이런때에 노ㅡ신을곳먹으면 疲勞햇든頭腦도 똑똑해지고 明快하게되며 工夫하는能率을 百%나 發揮할수잇다
노ㅡ신은効力이빠르고確實하야 副作用이업는完成된 綜合的頭腦藥이다 또한價格도至廉한藥으로學生諸君等座右의常備藥으로 適當한理想的藥이다
主効 頭痛·疲勞 頭重·頭腦 心氣·倦怠 上氣·頭內朦朧
藥價 .30 .50 1.00 2.00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山本商店
大阪市西區幸町通五丁目
電話櫻川 三九九四 二九九五 三七六六番
工作機械 製材機械 木工機械 丸鋸機 角鋸機 砥石研磨機 ……
商報呈

瓦斯鎔接器
總ゆる金屬作業を最も簡易化する瓦斯鎔接と切斷工法
要具一式組合せ大奉仕特價提供
新設購入の絕好機會
特長ある製品の新らしい販賣方法
カタログ進呈
專門製作
合資會社 根津工業所
大阪市港區九條中通二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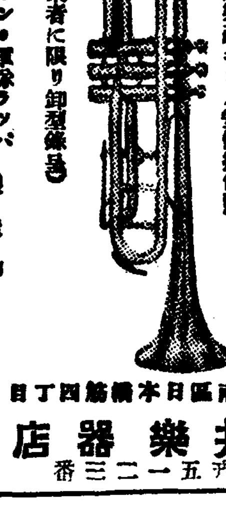
精米機ポンプ
發動機噴霧器
(カタログ送呈)
有光製作所
大阪西區阿波座上通一


萬年筆
カタログ呈
ナイン萬年筆
ナインシヤープペンシル
製造本舖 古村製作所
大阪市南區松屋町四九
電話東七三四二一 振替大阪五四七七八番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綫、朱子、人絹
人絹端切各種卸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 親切히 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 大阪商工第二三號圖
(商報送呈) 見本은要五十錢(切手)
國 津村合資會社
電話南 二三二四八 振替大阪 二一三九番

流行 袋物製造卸問屋
商標 福 登錄
福本又兵衛商店
大阪市東區博勞町貳丁目
商報送呈
電話船場三一〇五番 振替大阪七九〇〇八番

眼鏡
파이프 쥐암이 煙草入 卷煙草入
煙草具專門製造卸
津田嘉助商店
大阪市東區博勞町三丁目四
(眼鏡部商報送呈) (價格表送呈)
電話船場四四四〇番 振替大阪二七五三四番


NMI管樂器
最古ノ歷史ヲ誇ル!! 多量製產ニヨル安價提供!!
營業者に限り卸型錄呈
ナカネオルガン・軍隊ラツパ・シレネギター・ハーモニカ 製造卸
中井樂器店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電話(浪速)五一二二三番

玩具仕入の好期來る
均一店、露店向高級品各種品揃
百般敎育玩具の問屋
玩具問屋 合名會社 辻宗七商店
大阪市南區松屋町三十八
電話東三八六〇番 振替大阪五六六〇
一錢切手ヲ 商報送呈

밀국수·소바·호떡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合蕃椒粉
(고 초 가 루)

續 重壓에落命한文孃

辯明을諦念한瞬間에 不得已한『死의決心』

문양이죽엄길을피치못한身邊에對하야 社會各界의物議紛紛

기보=죽엄과도 밖우지못할 녀자의「절행」(節行)을 여지없이 짓밟힌끄테 최연은 몸의결백을 풀으려하얏스나 그여시풀길업서서 피눈물 서리운 유서비통을 이괴로운 시비(是非)에의 최후의 선물로하고 청춘 이십고개를 당황하게 청산한 리화녀자 전문 문과생(梨花女子專門文科生) 문장숙(文章淑)양의 기사가 한번세간에 알리워지자 귀여운자녀를 둔 가정의 실색은 말할것도업고 교육계를비롯하야 각방면 식자간에는 충동과함께 일어나는물론이비등하야 근래에드문 교육계의 파문을 흔들어 일으키는동시에 자녀 교육문제에 새로운 과제(課題)를 던지고잇다.

문양이 죽기전까지 안깐힘을써가며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하려 하얏스나 그길은 어데메인가? 사면으로 막히바되여 구천(九天)에 호소한들 들을길이 업는것을 체념(諦念)한 순간에는오직 죽엄 그한길로 자신의 방어선(防禦線)을 펴고 만것이니 죽기까지 문양의 가슴속기피 사모친 고통이 어떠하얏다는 것은다음의 유서내용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음이 잇거니와 한편으로 문양에게 고립무원의 자리를내민 주위의환경을 볼때에는 문제의필적(筆蹟)사건과 아울러 금전소비사건에 대한학교당국의 처사가 너무나소홀하얏고 가혹하얏다는 세간의물의가 물끝틋하고잇서 종전에볼수업든특이한 사회적관심을 끌고잇다.

유서에 비추인 문양의 심리적고통! 그고통이 결국은 리지적인 문양의 구든자신을 결박한 남어지 귀중한 생명을 빼앗고 만것이니 이제는 입이업는 시체가되고 만지라! 귀가 떨지어 신원(伸寃)의 수고롭을덜어주리오? (사진은 유서일부)

事件處理의經過

金尙鎔先生談話에依함

十四日(木)첫재시간이 끗난뒤에 문양이차저와서 맛나자고하엿스나 교수관계로 경서시간에 맛낫다 내방에드러온 문양은붉은 안색을 변하며 울다가박선생에게서 무슨말을 못드럿슴닛가하며 울음을계속하다가 대개귀보에 게재된것과가튼 글씨에관한이야기와 자기의 결백을말하엿다 나는그때까지 박선생과맛나지안햇섯슴으로「나는너를조곰도 의심치안는다 박선생과맛나서자세한 의론을 하겟다」고한후 자연해결을 기다리고잇섯다

十七日(日)서대문우편국 십륙일부가찍힌 투서가드러와다

十八日(月)이투서를 일반에게 공개하야 결백함이 증명된 문양이 이날아침에 희색이만면하야 차저왓슴으로「그것잘되엿다」고 말하야 사건은 일단락을지은줄알앗다

十九日(火)(수업전)이번문제에 관하여서 박선생을 만난것은이것이처음이다 투서와필기를 식힌 두장의조회를 보이며 이과실의책임자라는것을 지적하엿다 조금 지나서 내가문양을 불러서 필기에 관한말을 하엿드니 깜작 놀라며 먼산만바라보고 잇다가「네시까지에 대답하겟습니다」라는 최후의 말을 남기고 울더 갓 이때는 이날열시경이엿섯다 잘못은 누구에게잇든 사회에 대한 미안한심정은 이로표현할수업다 이에대하야 나개인의 책임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야 처리하겟다

記者의質問에 朴舍監答辯要旨

그리고 문양의 필적을 조사하얏다는 기숙사사감 박은혜씨를「셋브란쓰」병원으로차저 필기사건의 경과와 문양에대한주장유무를 물엇드니「미안합니다」한마디에는 더말이업섯다

그가질머진陋名은 異端者라는烙印

갈팡질팡苦惱의죽엄은길엇다

遺書에點綴한斷腸曲

그러면 왜 문장숙양은 죽엄을 찻지안흘수밧게 업섯든가 문제의도화선은 이십일조간에 기보한바와가티 그가 책임맛고잇는 동무의돈 이십원의 출처가 분명치 못한탓으로 그에게 나린 불령어리를 털려고하다가 끗끗내 그뜻을 이루지못하며 드듸여 죽엄으로써 자기의결백을표시하려고 눈나리는 깨끗한산봉오리를 차저 전기와가튼 최후를마지 하게되엿다고한다 이제 그가 이세상에 남기고간 넉장의유서는 이에대한최후의발언권을 요구하고 그가 죽엄을차즐수밧게업섯든 당시의 이시실에 대한 심리적고뇌와 상황을여실히 보여주고잇다 이제 옵빠에게보내는 편지의 일절을 보면「…이더러운 누명을 버슬길 알지못하고 滿洲로 도망갈예정으로햇든것이…」라는 문자가잇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그가이 사건발생이래 얼마나 마음속에서 또 마음을 썩이고 고뇌를 거듭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표증하려고 여러가지로 로심하엿스나 새롭운 밀명의 빗을찻지못하고 만주방면이라도 도망가서 자기의 더러운 누명의 옷을버리려고 애쓰고잇섯든것을 가히 짐작할수가잇다

그리고 항차 그가 배움의길을 닦고잇는 교단은독밋숀스쿨이다 하나님의 신앙(信仰)을요구하는 그배움의 마당에잇서서 그가 질머진루명은 절대로 용납할수업는 이단자(異端者)의「귀갈」과도 맛찬가지의 것이며「하나님과 너(汝)는이 압박게업다」는 최후심판자의 엄중한 구조(口調)로 청청벽력 가튼 최후적 단정이 얼마나 나어린 신앙의사도문장숙양의 마음을 괴롭게 하엿슬것이며 그의 죽엄의 길을재촉한책직이 아니엿다고 누가 시인할수가잇스랴 배움의 마당을 나려보며 자유의 종소래를 들으면서 리지와 성격이 용서안하는 최악의 루명을 버스려고 떨리는 펜으로지은—존경하고 사랑하는 육친과 동무들에게 보낸유서는 무엇이엇든가

遺書全文

父母님께

父母님 저와가튼 不幸子息은 죽어 무어라말하기 苦痛합니다 저는 아-무 罪업시 더러운누명쓰고 이더러운 世上을 하직합니다 마즈막으로 이 子息의 罪가 굿지못함을 용서하소서

옵바

저는 前日에 옵바보고 거짓말하엿습니다 그동기는 저는 이더러운 누명 버슬길업지못하고 滿洲로 도망갈예정으로 햇든것이 누명을 입은日 밤에 버섯다고 조와하다보니 도리어 저가 더 더러운 누명을 쓰게되여 이한만코 더러운 世上을 떠나갑니다 끄트로 이런 어리석은 꼿까지 自己의 潔白을 못보이는 이아해를 불상히여겨주시기빕니다

昌雲아

昌雲아 未安하다 나는무서운計劃에 사로잡혀 누구의 筆蹟과내筆蹟이 가리되여 나는더 참으려야참을수업다 마즈막으로 훌륭한 사람되여다오

親愛하는邊淑卿

나는 罪名을 버슨줄 아럿더니 여전히 아니 더욱 내가計劃的으로 도적이 되엿것이엇다 이다음에 나를생각하거든 오죽 가엽슨 女子엿다고 알어주며 마즈막으로 朝鮮의 큰일꾼이 되여주기바라네

친동생 창운(昌雲)군에게 보낸유서가운데「나는 무서운 計劃에 사로잡혀 누구의 筆蹟과 내筆蹟이 가리되여 나는 더 참으려야 참을수업다…」되 친애한변숙경(邊淑卿)군에게하는 글월가운데에는「나는 누명을 버슬줄 아럿더니 여전히 아니 더욱 내가 計劃的으로 도적이 된 것이엿다…」 속담에 새도 죽을적에는 슬픈소리를 하는것과가티 사람도 죽을때에는 바른소리를하고죽는다라는 말이잇다 그럿다면 전기의 문자는 그의 심장속에서 우러나오는 비절한 최후의 아우성소리가아닐가 학원의독립을 자랑하는 그곳에서 사소한 물질적「스캔들」을 일소하기 위하야 미묘한 생과 애정을 가지고잇는 여러동무들아페서 무자비한 사백한다운 물적가치(物的價値)를 하엿다는것은 너무나 지나친 행사가 아닐가 선생이 생도를 맷고 생도가 선생을 밋는 학원 속에서 어떠한 행사가 잇섯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미롭지안흔 사실이 아닐가 여러사람아페서 모욕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의 심신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것인가 더욱처녀성 그리고 꼿도 부러워할 이팔처녀에게주는 그의 심리적영향이 얼마나큰것엿던가는 녀성교육가아닌 일반이 이미 경험과 추상으로써 짐작할수가잇다 돈 이십원에 죽엄이라는것은 참으로 너무나 값싼 희생이다 좌우간 문장숙양의 죽엄은 우리녀성계 교육계에 새로운 과제를 남겨준것이라고할것이다.

投書事件과 學校의處事

기숙사생일동의필적조사

物議의中心點은여기에

문장숙양의 사건이 표면화하기시작한 십사일로부터 십구일 오전 열시반경에 그의유서를발견한학생들이 선생에게 급보를 가지고 가기까지에 이러난 자세한 경과는 다음에 기록하는 동교박은애(朴恩愛)선생과 김상용(金尙鎔)선생의 담화로알것이나 불과륙일동안에 박, 김량선생과 문양과사이에 전개된 착잡한성황가운데서 가장주목을 끄으는점은 기보한 괴투서의 출처를 규명함에잇서서 전기숙사생을 모아노코 투서의내용을 두룽식 필기시킨 학교당국이 취한 태도로 이는 너무나「어머니의 자애를 버리고 아버지의 엄함만을 고수하지안헛나한다 이것을 처리함에 잇서서는 당자는 맛당히 문양에 대한 선입감을 버려야겟고 좀더 침착한 태도로 문제를 표면화서히 시기지말고 개인의신상문제에는만큼 비밀히 조사할것이 아니엿든가 이조급한 처사가 그가리 의외의 방면으로 이사건을 끄을고 갈것이 아닌가하야 세간물의의 중심점은 여기에 잇는것이다.

『아버님오신뒤 모든것을決定』

누이의찬죽엄을지키고잇는 그의옵빠文昌鳳氏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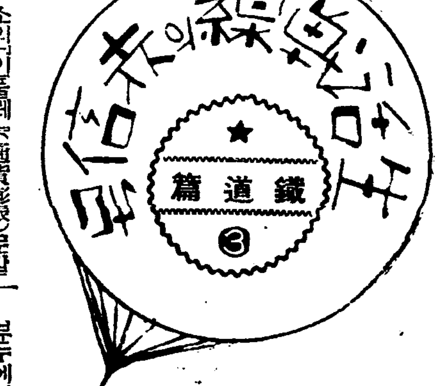
의전병원(醫專病院)부속마루러에 외로히 떠러저잇는 조고만한일본제외집 사망실(死亡室)에서 유리창 흥으로 밀려드는 한세(寒氣)의 찬바람을 마저가면서 한만흔 최후를마친 누의동생의찬 죽엄을 쳐려노코 그의 오빠는 어조로 다음과가튼이야 다

「누이동생의 죽엄으로 [illegible] 것은 부자연한 죽엄을 찾은 누이동생의 심경을 생각하면 오빠되는 나의 가슴은 여러가지 생각으로 터질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라고 엿줄수는 업습니다 고향에 게신 아버지께서도 래일아츰 올터오시고 동경에잇는 동생도 래일 온다고하니 여러가지로 상의하야 누이의죽엄에대한 태도를 결정하려고합니다 좌우간 [illegible]

致富動脈鐵道景氣

煙氣를뿜을수록돈나오는愛嬌덩이火筒

하로에잘버는날은二十萬圓



소위인풀레(通貨膨脹)로말미암아 각색물건갑시 올르고 매매가 홍성하게되믈 따라서 철도우으로 달리는기차의 차량도훨신 늘게된다 경제계의 번창과 쇠퇴는무엇보다도 이 철도우에서 가장빨르게반영된다 말하자면 철도는 경제게의 동향을분명히 비추어주는 거울과가튼것이다 철도국에서 려객이업는 빈차만을 운전하게된다거나 화물이업서서 화물열차가 정거장 한구석에서 럴럴지어 낫잠을 자고잇게되는 광경을 이루게되는때에는 역시장사집에서는 팔장을끼고 하품을하고잇스며 정거장아페서나 배다이는 부두(埠頭)에서는 로동자가 지개를빼개삽아 조을고잇는것이다

★

그런데 작년이래의 철도의운수상황을보면 기차바퀴는힘찻을 떠러드리며 밤낫으로빨리다 통괴하고잇스니 차량(車輛)이 [illegible] 부두에서는 로동자가부족해서 짐꽉이 산덤이가티 싸이게되는 광경이다 그래서 철도당국자는 적자(赤)를 내든『마이나스』업적(業績)에서 흑자(黑字)를 내는『플러스』업적을 내엿다고 깃븐얼골로 자랑을하고잇다 이제 잠간 지난 십이월 한달동안의 화물운수성적만 보아도 철도국선(局線)만으로 발송한것은 팔십삼만팔천사백삼톤(噸)이며 사설철도와 만주철도등 련대선(連帶線)으로 발송한것은 십구만오백륙십칠톤으로 합계 일백이만팔천구백륙십칠톤이니된다 이것을 전년(소화십년)십이월의 운수성적에 비하면 십일퍼센트나 증가되엿다하니 철도당국자가 기쁘하며 자랑하는것도 당연한 심정일것을 알수잇다

★

십이월한달의 화물운수의 업적만 보아도이와가튼 놀라운 조흔 성적을 나타내고 잇거니와 이제 한거름 더 나아가서 년도초(年度初)인 작년 사월부터 십이월까지 아홉달동안의 루계업적을 보면 려객(旅客)은 삼백이십팔만구천 일백구십 칠인으로 그수입금액은 이백오십칠만일천삼백구십팔원이며 화물은두십오만일천륙백사십삼톤「키로톤」(噸)으로그수입금액은삼백팔십구만이백칠십삼원으로 두가지를 합하면 륙백사십륙만일천륙백칠십사원이나되는 거액이다 어재건 정기차(定期車)나 림시차(臨時車)나 차마다 만원이며 심한 때는 경성서 대전(大田)까지 네시간동안을 안즐자리가 업서서 꼼바 서서가는 려객이잇는 광경도 흔히 보게된다 그러고 화물렬차는 적체되는 화물을 소화시키기 위하야 작년 십이월 일일부터는 부산 안동현(安東縣)사이에 급행화물렬차 한회를 더 내고잇다 화물가운데서도 다량의 수위를 차지하고 잇는것은「골드러쉬」에따른광석(鑛石)의 운수와 목재(木材)석탄(石炭)「세멘트」신탄(薪炭)등이다 누른빗이 번적이는광석을실고 가는 화물렬차가경원선(京元線)삼방(三防)산골에서 탈선전복되든 사고를 내것도 아직 기억이 새로운 수일전의 일이다 그러고 조선과만주로 향해오는 일본내지의 잡화류가 정월을 기약하야 드러밀고 북조선지방의 명태가 만히 잡혀서 경원선 화물차를 번창케한다 목재와『세멘트』는 물론 토목사업과 건축공사의 번창에 따르는현상이라할수잇다 그러나 미곡은 전년에 비하야 수송이적다 이것을 미곡통제의 영향과 농가에서 고까를 기다리고 팔기를 실혀하는 판계임은 물론이다

여러말 할것 업시 작년어느때에는 하로에 이십만원의 수입이 잇섯다는것을 보아서 조선의경기(景氣)는『철도로부터』라고 놉히소리질러도무방하겟다

―사진은 철도운수의 이모양 저모양

主要各河川의 改修工事費決定

普通江外八個所

미증유의 작년대수해로 심각한자극을 바든총독부에서는 치수근본대책강구에 비상히 고심하야오든중 금년부터 오개년계속사업으로 전조선각지에 잇는 중소하천을 개수하야 치수대책의 제일진을 치리라는데 그주요한중소하천은 다음과가티 한다 (單位千圓)

全南	東川	一、〇〇〇
慶北	光山江	一、二〇〇
平南	普通江	四、〇〇〇
京畿	清溪川	一、二〇〇
忠南	金川(錦江上流)	二、三〇〇
同	美湖川	一、七〇〇
全北	高山川(萬頃江上流)	一〇〇
同	咸悅川	一、二〇〇

치수근본대책으로 개수하는중소하천은 이상과갓거니와 평양보통강(平壤普通江)은 서평양부근에서 이리저리 꾸부러진것을 전부 잘러서 직선이되게 공사를 할터이라는데 이로인하야서 평양일대의 발전이 상당하리라고 예상된다

麻浦強盜

虛僞申告로判明

기보=십오일오전두시쯤에 부내마포정(麻浦町)에잇는 김중화(金仲和)전당포에서 이러난 강도사건에 대하야는 그간 피해자 류인만(柳仁萬)의 말에 의심을 두고 이래취조하든중 류인만의 허위신고로 판명되여당자는 곳 이십구일에 직결처분을바더 류치중이라한다

聖劇의밤盛況

시내 수송정(壽松町)에잇는 명성학교(明星學校)에서는 부내 부민관대강당에서 십구이십량일간 석존성도기렴(釋尊成道記念)으로 강연 음악 성극의밤을 개최하엿는데 량일밤모다 오후일곱시부터 대만원을이루엇스며 대성황리에 폐회하엿다한다 (사진은성극의일장면)

堂々第一·다들수업는事實

藥業界有史以來百補丸이 最高賣上記錄

그原因은效力斷然第一인까닭!

京城四大郵便局의發送數字가證明

●朝鮮에서過去 數十年間 여러가지 新舊補藥이續出하야 各處에서 큰廣告도만히 한일이잇지만은 그 賣上高에 잇서서는 百補丸이斷然!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내고잇습니다 이것은 京城四大郵便局의發送數字가 事實을證明하는바이니 속이려야 속일수업고 疑心하려야 疑心할수업는 堂々한 事實입니다

●百補丸이 이러케 비빨치듯 만히歡迎밧는 理由는 무엇보다도 第一効力이 卓越하고 第一信用이 큰까닭입니다。

●그러므로 百補丸은貴族、兩班을비롯하야 京鄕各地名士諸氏의 最大賞讚과 推奬愛用을밧는바이며、萬人이 다투어服用하고 激讚感謝 하는바입니다

●世上에서 廣告만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크게 낼수가잇지마는、그卓越한藥効에對하여는 洋의東西와 學博士를勿論하고 누구나마음대로 할수업는것입니다。百補丸이 朝鮮에서 第一만히팔리고、第一信用만코、最大의歡迎과 最高의推奬을밧는것은 오즉 百補丸이 補藥界에서 有史以來에 그効力이가장 絕大偉大한까닭이며 廣告가큰까닭이아닙니다。

●百補丸은 이와가티 効力으로나、信用으로나、賣上으로나、무엇으로나 斷然補藥界에 堂々第一인것이속일수업는 事實로서 確定되엿습니다

이로써 服藥家의 疑心도 一掃되엿습니다

日本政府特許局登錄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血·全身百補·不老·更少年化藥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人生의再逢春

百補丸의効力은이러케굉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 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 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一、神經이 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 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 服用하여 씩씩한 青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가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飲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놈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소와 오랜淋疾도 消湯됩니다
一、男女老少를勿論하고虛弱한분에게는 第一입니다

藥價 一劑 特價 拾圓 / 重用 貳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藥注文 送金은 (左記三處中 便宜한口座에)
一、振替京城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大三二番·振替五番

新堂町貧家에 娼妓가同情金

시내신당정(新堂町) 어린아이 세명이 돌보는이업시 헐벗고 굶주리는 참상을 듯고 시내 신정유곽(新町遊廓)에서 창기노릇하고잇는 산본추자(山本秋子)가 이십일 소위계로 현금이원을 동봉하야 적은 금액이나마 그들에게 전하여달라고 동대문서에 보내여왓음으로 그서에서는 곳 김동호(金東浩)에게 전하엿다

觀光京城에 拍車

映畵、포스터、라듸오、레베르等 各種方法으로 宣傳

다른지방손님을 경성으로끌어드려 구경을만히하게하고 돈을만히 떠러트려서 경성을 더욱번창하게하고저 여러가지방법으로 애를쓰고잇는 경성관광협회(觀光協會)에서는 소화십이년도의진행사업에 대하야 여러가지안(案)을 세우고잇는데 그중요한 것은 새게획으로관광데이를 개최하려는것이다 그내용의 세목을보면

◀관광의밤을 개최하야영화(映畵)와무용회(舞踊會)를 개최하고

◀상업진흥(産業振興)관광『서비스』를 하기로하야 상점거리 『카페』『빠』화류가(花柳街) 합숙소 목욕간등 사람이 만히 출입하는곳에 서울구경을 선전하는일방 서울토산품(土産品)을 선전하기로하고 관광『스탬프』를 맨드러서 체신국에 의뢰하야 사용하게하고

◀관광『포스터』를 맨들어서 려행객들의 『트랭크』 기타 휴대품에 부처주기로하고

◀관광『마-크』를 맨들어서 접객업자(接客業者)들에게 사용케하고

◀관광에 대한 지식잇는이를 청하야 방송을 하기로하고

◀삐라 기타 인쇄물을맨드러서 널리 반포하기로할터이라한다

이달하순쯤에 위원회를 열고 여러가지로 협의할터인데 『관광데이』는오월상순이나 중순쯤에 개최할 예정이라한다

그리고 또 각려관의 하녀와 수종군들을 모아서『써비스』강습회도 개최하야 외처에서오는손님들에게 친절히 접대하는 방법을가르처서 조흔평판을 밧기에 힘쓰게할터이라한다

軍需인플레景氣로 仁川港古鐵山積

時價도 二三倍騰貴

【仁川】 시국의풀안으로 팽창되는군수경기와 『인플레』경기에대한일반물가는 앙등일로의기세를 보여주고 잇슬뿐아니라 조선의 무역항 인천부두의 현상이유일한증명거리가 되고잇다 이제인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인천부두에 별로히 그자태를보여주지안튼 고철(古鐵)이 매일쇄도하야 그야말로 문짜그대로의쇠산(鐵山)을이루고잇는현상이다 이제또한 그시가를조사하야보면

銑鐵	噸	八〇圓
同	割	同八二圓至八六圓
古鐵		同八〇圓
鐵材		同二四〇圓至二三〇圓
鉛	百斤	三三圓
『콕스』		噸三一圓

이라는바 이를평년시가에비하면 배내지이배의고가를보여주고 잇스며 그중에도가장 우세한것은 헌쇠(古鐵)이라는데이리유를전문가에듯건대 오로지 군수경기와 인플레경기라하며이와한가지한도막의 에피소드로는 골목골목마다 『헌쇠엿사라』하는 소래가하날놉히 활기를 띄고잇는사실이라한다

商都開城에 繁榮策企劃

開城商工總會開催

【開城】 지난 십팔일 오후한시 개성상공회의소(開城商工會議所)에서는 금년도 예산총회를 동회의실에서 회두 박봉진(朴鳳鎭)씨 사회하에 성대히개최하엿다 개회벽두에 세입 세출예산액일만이천오백이십원을 토의상정한바 작년도보다 일천오백오십이원의증가를보엿스나 상도개성(商都開城)의 약진적 번영책을 실현키위하야선 전긔예산액도 실로 부족한바 의원각자는 보담 큰포부로 여러가지 사업 급시설등의 희망점을 들어 분화활동에 박차를가하게하얏다 회의는 동시경무사폐회하얏는데금년도사업게획은 여좌하다

一、所報(開城商工)發刊
一、商工案內發行
一、「開城」宣傳印刷物刊行
一、開城輸移出入貿易調査
一、開城重要物貨의 卸小賣調査
一、勞銀調査
一、開城諸營業者狀態調査
一、府內保險業態調査
一、開城商人의地方分布狀態調査
一、商工業發展上地方人誘致必要施設(花柴、人蔘祭展覽市等)
一、生產 販賣業者座談會
一、商工從業員修養講演會
一、商工從業員訓練所開設
一、組合及組合聯合會組織斡旋
一、開城鐵原沿線經濟調査班組織
一、産業經濟視察團組織
一、舊習慣改善指導(商取引에關聯한 帳簿 陽曆使用 支拂日)
一、商工從業者에必要한商業施設(公休日 其他)請
一、事務所建築促進件

培材럭비軍 祝勝會

百餘名參席

全日本中等럭비ー制覇의 榮譽를이룬 培材高普럭비ー部祝勝會는 培材同窓會主催로 二十日午後六時부터 同校講堂에서 同窓生과 敎職員 一般體育關係者約百餘名이 參集한가운데 同窓會長申興雨氏의 開會辭로 열리어 럭비ー部長 林學春氏의 戰績報告談話이잇서 和氣靄靄裡에 同七時半에 散會하엿다 (寫眞은 同會場光景)

正月의 健忘症!

京城驛待合室에 遺棄品이山積 廿日間三百四十件

하로에 일만수천명의 려객을토하는경성역(京城驛)에는 이저버리고 두고가는 물건도 무척 만타 금년에드러서 겨우이십일동안에 수짜로보아 삼백사십삼건이라는데 그가운대서 제일만흔것은 모자목도리 장갑등이며 그다음으로는 손가방 지팽이 시계등이며 그밧게『우이스키』활동사진필름 혹은 춘화도등도잇고 더욱이 놀랄것은 고등문관 사법과 합격증서한장도잇다는것이라한다 이상에 여러가지 물건을 이저버리고간사람들은 모두 건망증이 잇는사람이거나 그러치안흐면 차떠나는시간이 림박하야 총망한탓인듯하다한다 이저버린사람은 여자보다도 남자가더 만흔것도 그럴듯한일이다

本報仁川支局主催의 文化刺繡講習會

◇大盛況裡에 終了

【仁川】 본보인천지국에서는 과반문자수강습회를 개최하엿든바 그성적이 대단량호하얏슬뿐아니라 일반가정에도 잘보급이 되엿는데 금번은 특히 새다른 자수를장려코자 경성수예연구소(京城手藝研究所)에 후원을바더 동소의 김광지(金光芝) 문정자(文貞子)양씨를 초빙하야 지난십일부터 율목리(栗木里)무도관(武道館)에서 개최하엿든바 개강중에 만흔성적을엇고 지난십팔일 마친내 막을닷게되야 강습회는대성황리에종료하얏다한다

明廿二日부터열릴 全日本氷上에

朝鮮選手十名이出場할터 金、崔君의制覇有望

第八回全日本氷上競技選手權大會는 明二十二日부터三日間 長野縣諏訪湖畔에서 擧行할터인데 이에出場할朝鮮選手는 明大의金正淵、張祐植、崔龍振、安重熙、金甚聖、張日弘、尹貞植、許景日、林貞吉君等諸君과 滿洲代表로 朴貞吉君等이며 朝鮮代表四選手는 事情에依하야遠征을中止하고 滿州의金正淵君이單身出場케되엿다 이리하야全日本에서 三十九名의精銳들이動員하야 霸權을決하기로되엿는데 戰前의豫想으로는 金正淵 崔龍振君等의優勝이有望視된다

朝鮮硏武館創立記念 聯合寒中大練習

朝鮮硏武館에서는 創立五週年을 記念하기爲하야 同館과直接關係가잇는 普成專門、普成高普、徽新學校柔道部의 聯合寒中大練習을 二十一日부터 三十日까지 每日 午前五時부터 同六時까지 同館에서 擧行할터이라고한다

跳躍同位決定의 陸上規約改正

昭和十二年度의 陸上競技規約에關하야서는 昨年八月十、十一兩日間 伯林體育館講堂에서 열리엇든 國際陸聯總會에서決定한 改正規約에따라서 來卅、卅一兩日間 丸之內호텔에서 行할 日本陸聯總會에 提案하야 곳實施하기로된바 今年度規約의主要改正은 다음과가트며 이改正規約은 同位決勝으로因한 競技進行이 支障되엿든 從來의時間的浪費가 얼마큼 迅速하게되엿다 立幅跳、走高跳、棒高跳等에잇서 同成績時의 審判決定方法에는 從來는 追加試技를 行함으로써 順位를決定하엿스나 新規則에依하면 다음과가티改正되엿다

(가)二人以上이 同成績時에는 最後의 高位에서 試技數가적은者를上位로함 (나)그리고同成績때에는 最初로부터의 成績中無效試技(失敗)가 적은者를 上位로함 (다)그래도同成績인時에는 一等을決할때만限하야 追加試技를行하며 二等以下는 追加試技를行하지안코 同位로함

躍進仁川施設 工事場人夫難

中國"쿠리"陸續採用中

【仁川】 인천부두의 활기는각방으로 약진하고잇서서 무역액이억원돌파하지 안흔이못되야 발서삼억원목표로 무역액은증가되고 잇서 실로무역인천의 대활기를 띄여주고잇다 따라서신년게획에 일천만원경비로서시작한동양일의 대축항도금번으로 제삼번을마지하게됨으로정차본격적공사가시행될것이오따라서팔십오만원의인천부두복비와각공장의인천진출로써 일반로동층에서는 시세를 마치는등에잇스나 일반공사장에는인부채용난을 늣기고 중국 『쿨리』를 채용하겟다는 외국인로동자채용원서등이 인천서에 륙속부절도 제출되고잇슴으로 당국으로부터도 인부채용난을 해소시킬방책을 강구중이다

悲觀靑年飮毒

십팔일오전열한시반경에 시내 북아현정(北峴町)일백오십칠번지 김영삼(金永三)씨의 장남 김인석(金仁錫)(二一)이라는 청년이 자긔집에서 칼모친으로 자살을 도모하야 신음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부근의원에입원시켜 응급치료를 한결과 겨우생명은 건젓다고 한다 원인은 그는 상점 점원노릇을 하고잇는바 최근 자긔가독립하야 장사를해보려고 그의아버지에게 돈이백원을 청구하엿스나 아버지가 돈을주지아니함으로 그와가티 자살을 하려던것이라고한다

春窮期를機會로 婦女誘引魔出沒

仁川署서嚴重團束

【仁川】 작년도미증유의 부천군(富川郡)흉작의피해정도는 나날히극심하야지고잇다 이와한가지 각종의더배들은 궁핍에울고잇는 일반농촌을 침해하는자가 비일비재하다 지난십구일은 부천군 영종면운서리(富川郡永宗面雲西里) 박두조(朴斗祚)([illegible])가 부근 가정부인들을 전문적으로 유인매계한다는소식을접하고 방금엄중 탐색중인데 이외에도 중국과에서 한농촌을 침해하는 불량배들을 업중단속하고자 인천서보안게에서는 경계중이라한다

十餘年勤續 模範店員表彰

開城府의 盛擧

【開城】 개성부사회과에서는 상업도시 개성에잇서서가지고 십년 이상을근속한 점원들에게는 착실한 공적을 특히 표창해줄이 올다는 취지하에 지난 십팔일 오후한시경 부청회의실에서 권부윤(權府尹)의 사회로 모범점원 표창식(模範店員表彰式)급 상장수여식이 성대히 거행된바 당선자가 십명으로 그들의 씨명은 다음과가다。

店員氏名	勤續年代	商店名稱
朴淳享([illegible])	十一年	永昶蔘行
金圭垣([illegible])	十年	金在鉉商店
李?烘([illegible])	十一年	高麗蔘業社
崔重源([illegible])	十年	金明善商店
南奎燮([illegible])	十三年	金煥鎭商店
劉昌鎬([illegible])	十年	金永煥果物店
金相華([illegible])	十一年	金在鉉商店
金又烘([illegible])	十二年	松京精米所
姜 櫻([illegible])	十二年	尹根秀精米所
太山治郞([illegible])	十三年	かなや吳服店

名物"獨身"아파트"

三階鐵筋콩크리트百餘室 府에서訓鍊院에建築

경성부윤의 발의로 경성부에서는 방봉생활에 신고하고잇는 독신부리원들의 주택문제를 완화하기위하야 약오만원의 경비를드려 훈련원(訓鍊院)의 한모퉁이에 철근『콩크리트』삼층의 『아파트』를 건설하고저 준비를 하고잇다 방은『다다미』넉장반짜리 오십사개와 『다다미』여섯장 짜리 사십륙개로 방마다양복장과 침대와 『스팀』등을 설비하고 각층에『까스』를 부설하기로 되엿다한다 료금은 『다다미』넉장반방에는 팔원오십전 여섯장방에는 십원을바들 예정이라한다

이와가티 독신『아파트』를경성부에서 건설하게 된데대하야 경성부송도(松島)총무부장은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아파트』는 일종의 셋집으로 되는것인데 그보다도 주택이업서서 곤난한 방봉생활자들을위하야 그들에게 적당한부영주택을 건설하야 월부(月賦)나혹은 년부(年賦)제도로써 그건축비를 부담하게하고 나종에는 개인의단독소유가 되도록 맨드는것이 이 도시에잇서서 사회정책적으로 더욱이필요한의미잇는 일인줄로 생각한다 그런데 부윤은『아파트』건설에만흥미를가지고 그것을 계획하고잇는모양이다

戶籍事務分室設置

경성부의 호적과사무는 날로복잡하여가고 사무실은 좁아서 늘혼잡한 광경을 이루게되므로 이십일부터 부청일층에 일본내지인호적사무분실을설치하야 사무를 보고잇다

合議로 虛僞申告

廿九日의即決處分

자긔형의말(馬)을파러도박에랑비하려고 자긔의동무와 공모하야 합의강도의 교묘한연극을하다가 륙지장신세를지게된 두청년이잇다 시내 부내룡산서공덕정주재소(孔德町駐在所)관내 공덕정 오십팔호에 사는 말구루마업을하는 리완성(李完成)([illegible])은 동일오후한시십오분경에 괴한이대문으로 침입하면서 죽일터이니 꼼작말고 돈을내이라하며 현금일백십원이 든 검은색지갑을 강탈하야갓다는신고가잇섯다 구변말이 밤두하야 신경을 예민하게하고잇는 룡산서에서는급보로 비상소집을하는동시에 피해자집 현장을검증한즉 괴적이침입한발자욱이 분명하엿스며 교묘한범행인것을 발견하엿다동시에 피해자집변소를 뒤지자현금칠십이원이 의외에 나타나게되엿다 이에의심을가진 형사대는 신고인 리완성을 취조하자 그는작년십이월 이십팔일에 그형의부탁으로 형의말(馬)을일백십원에 파러가지고 도라오는도중 평시에조아하는 도박을 하야 삼십오원을 이러버리자 형에게 할말이 업서서 이래 그저지내다가 자긔의벗인아현정(阿峴町)삼백륙십번지에사는 정윤성(鄭允成)에게그사정을 말하고서로합의하야 전긔 강도연극을한것이며 실은지갑속에 십삼원만너허노코 남저지는 변소뒤에감추어둔것이라하며 정윤성은십삼원든 지갑을가지고 아현정으로 추어둔것이라하며 정윤성은십삼원을가지고 아현정으로 라한다

故人된府職員들

二百餘名慰靈祭

경성부에서는 오는이십구일오후두시에 부민관대강당에서 고인된경성부원부리원(府吏員) 부회의원 원부협의원(協議員) 원부학교조합의원 원학교평의원 원정동회총대 원부관계학교직원등 약이백명의 위령제(慰靈祭)를 불식(佛式)으로 집행할터이라한다

富川郡蘇萊市場에 電燈架設工事

來二月부터着工

【仁川】 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 사천시장(蛇川市場)(뱀내장)에는 호수일천오백을 초과하고잇스나 아직전기공사가 되지아니하야 각방으로 그불편이 자심함으로 동면장을 위시하야 면유지제씨들의 발기로서 전등가설요망에대한 진정을 경기도와 총독부에 제출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간경전(京電)의 후의를바더 소사역(素砂驛)을 기점으로 일백이십사개의전선주를 세워서 전등가설공사를 이월부터 시작하게되엿다는데 느저도 금년여름에는암흑장면에잇든 사천시도명랑한전등을 보게되리라하야 발서부터 면민일동은 희열에넘처잇다한다

草家一棟全燒

【開城】 개성부외중면천년리목동(烈谷洞)김대제(金大濟)의처 리씨(李氏)([illegible])는 지난십일아침팔시경 자긔집안중에서 다다지도 안흔 장작불을재와함께 굴어다 변소에버렷든바 이것이 도화선이되여 동일오후가시경 초가일동을 전부불덩이속에 집어너코말엇다한다

開 城
經濟大講演會
◇日時 一月二十三日午後七時
◇場所 高麗青年會館
◇演題 軍需『인플레』와今後景氣
▲演士 裵成龍
▲主催 高麗靑年會學藝部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經濟大講演

廿三日夜高靑講堂서 本報開城支局後援

【開城】 오는이십삼일저녁 일곱시 고려청년회학예부(高麗靑年會學藝部)주최와 본보개성지국 후원으로 경제대강연회(經濟大講演會)를 동회관에서 개최케되엿다 요지음 군수(軍需)『인플레』로 모든물가가폭등이되여 상점과가정에관리가난하면 연사배성룡(裵成龍)씨의 이강연은 실제우리 시민생활에 깨다름이 만흘터인바 다수래청을 바란다고한다

▲演題 軍需인플레와今後景氣
▲演士 裵成龍氏

「아해 업는」 「부인의서름을」 누구에게하소연하리오

모ー도가부인병이원인

엇더케하면 자택에서 치료할수 잇슬가?

平素에는健康하든婦人이라도多年間家庭生活을하고 시부모와남편시중에골몰하야 身體가점점虛弱해지는故로 婦人에게따르는모든疾病과모든子宮病이 차차로發生하게됩니다

勿論어떤한病이던지 처음으로發生할때에는 누구던지等閑히하기쉬운것과가티 婦人病에잇서서도病이처음始作될때는別로苦痛이업고輕症이므로婦人病에對한多少의豫備的智識이업스면 治療를게을이하게되므로 病毒은不知中에깁히侵入하야 後日에婦人病이잡복된것을 비로소깨닷는그날에서 벌서病根이깁고病毒이全身에퍼젓스므로 病始初가트면一日或은七八日의治療로完全히根治될것도 三四日의治療로能히根治될것도 二週日乃至五週日의 治療를해야 낫게되므로物質的、精神的損失은더한層多大할것입니다 그러므로 婦人自身은勿論이오 婦人과關係가깁흔男便이나 시부모까지라도 家庭療法만은 반듯이알어두엇다가 病이重하게되기前에治療하여야됩니다

대개婦人은 先天的으로體質이弱한데다가 시집사리와가튼家庭生活의勞力과生理的으로 男子에게업는月經과姙娠出產、性交가튼特殊한사정이잇스므로말미아마 疾病에걸이기쉬운條件을具備하고잇습니다 또한우리朝鮮婦人은 붓그러워하는性質이만허서 病에걸렷슬지라도 부모에게나동무에게나男便에게까지라도 말하기를실혀하며 自己혼자서억지로苦痛을참고지냄니다 더욱이子宮病가튼것이야 더욱더말하기를실혀합니다 그뿐만아니라婦人에게는 不幸하게도經濟的自由가업스므로病을곳치고십허도 金錢이업서서곳치지못하는수도만습니다 이러한여러가지婦人의特殊事情과 婦人病에對한豫備智識이업스므로 婦人病을경홀히보는同時에 病에對한調攝도充分히하지못합니다 따라서 婦人病은 完全히快治하는 일이적으므로 婦人病이라는것은 곳칠수업는 先天的痼疾처럼역이게되엿슴니다

그러나 本舖에서는 三十餘年間研究에 硏究를거듭하야 婦人病藥을販賣하든關係上 三大醫學博士의指示를밧고 經驗한바에依하야 婦人諸病을알기쉽게 자세히써서 누구던지 읽으면 잘알수잇는小冊子를 書述하야 一般婦人에게 多少間이라도 婦人病에對한 智識을普及식히는 同時에 闡重한病은 自宅에서 스사로治療하는 方法까지 一一히記入하야 누구던지 請求하시는대로無代進呈합니다。一般婦人은勿論 男子까지라도 꼭한권식請求해보시기를 歡迎합니다

醫藥이發達된 文明時代에婦人病根治藥이업슬理가잇겟슴니다 허리와손발이冷하고 月經이不順하고게라하지나누런코물가튼대하증이흘으며 結婚한지三年五年이지나도록 애기를배지못하는婦人은 틀림업시 婦人病이잡복된증거이오니 婦人病良藥『命之母』를 服用하시고 根治하기바람니다 命之母를 服用하시면 얼골에화색이돗고 주름살이퍼지고고아름다워지며 손발이더워지고顯著히 淨血作用을하야 體內의毒素를全部滅殺식히고 病弱해진細胞를回復식혀주는結果 血液이淨潔하게되는同時에女性의호르몬이旺盛하야지면 不順하든月經이順調롭게되며대하증이根治되며姙娠까지하게됩니다

命之母는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하오며 藥價는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 二十日分三圓 三十五日分五圓까지잇습니다 特히本舖로注文하야服用하고자하는분은病勢를자서히 記入해보내시면適當한藥을代金引換郵便으로 急送합니다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笹岡省三藥房
振口東京五〇五〇番・電話京橋二八八七番

婦人病自宅治療書無代進呈

永同

永同郡鶴山面鶴山里 鶴山金山事務所 張炳善
永同郡永同邑內 忠淸北道會議員 孫在廈
永同郡梅谷面老川里 有志 柳性淵
永同邑內 永同醫院 醫師 鄭度相
永同郡黃澗驛前 內科外科性病科 精一醫院 醫師 金允坤 電話二〇番
永同郡黃澗驛前 全鮮大藥商聯合組合長 朝鮮消防協會本部評議員 三共商會 主 高津新二 電話七二四番
永同市場 染料 洋品帽子 御賣商 藤山永
永同市場 華商 義和福
永同市場 高崎商店
永同郡黃澗驛前 司法書士 閔泳祐
永同驛前 材木商 西村仁助
楊口酒造場 金容文
永同市場 金城鐵工所出張所
永同市場 華商 復興永
永同郡梅山面松湖里 俊成
永同郡陽山面柯谷里 李乪然
永同郡陽山面柯谷里 李元周
永同本町 藥種商 堀龍雄
永同市場 綢緞布木商 大同商會 洪琪杓
永同邑內 稽山金融組合
永同邑內 愛隣醫院 崔之翰
永同郡黃澗驛前 南城酒造場 文 電話二二番
永同郡黃澗驛前 馬山里酒造場
永同郡黃澗驛前 米穀商 大陸商會 主 鍾長 電話一〇番

永同郡黃澗驛前 穀物貿易商 陳孟洙
永同郡黃澗驛前 黃澗金融組合
永同市場 株式會社共榮社
永同邑內 永同商會 電話四五、四七番
永同市場 華商 天成泰
永同市場 海陸物產委託業 海王社 主 鄭仁植
永同學校組合管理者 宇都宮陽二郎
永同市場 布木商 金德雲
永同市場 百貨店新興商店 李聖澤
永同市場 布木商 金鍾洛 裵中久
永同市場 海陸物產委託販賣 洪淳鴻
永同本町 永美洋服店 朴道根
永同驛前 大興電氣株式會社永同支店 伊藤八郞
永同驛前 新永同 吉田旅館 電話一九番
永同本町 大川齒科醫院 大川松夫
永同郡永同面美?里 有志 成大植
永同市場 內外果物委託販賣 永成商會 裵金大相
永同市場 高等理髮 普成理髮館 裵淳甲
永同本町 中華料理 武吉館
永同市場 嶋金藏
永同邑內 朝鮮料理 永春館
永同本町 和洋家具 李一志
永同本町 司法書士 朴亨壽
永同本町 司法書士 孫興得
永同市場 綢緞布木 永盛商會
永同郡永同面美?里 釀造業 裵貞敎

永同驛前 茂朱自動車部 電話三四番
永同本町 最新流行 高等洋服 コルタ洋服店 金永遠
永同邑內 東洋酒造場 電話二四番
永同市場 三和商會 田茂根 電話二八番
永同驛前 運 主 卓 電話二八番
永同驛前 泉自動車部 電話三八番
永同郡鶴山面鶴山里 鶴山金融組合長 呂禹鉉
永同驛前 忠淸北道會議員 宇都宮善市
永同本町 永同金融組合
永同本町 株式會社漢城銀行永同支店
永同本町 南北綿業株式會社 永同繰綿工場
永同郵便所長 三宅勝三郞
永同市場 米穀肥料石油 南海社 電話一七番 成得煥
永同邑內 面協議員 李夔圭
永同市場 日用雜貨 洋品諸紙 素麵製造 海陸物產 廣成商店 金成達
永同本町 活版印刷 和洋紙 文房具 永信堂印刷所 禹敦植 電話一八番
永同郡公立普通學校長團
永同稅務署
居昌
大邱地方法院永同出張所 職員一同

雙虹舞 【92】

方仁根 作 金奎澤 畫

强弱 (二)

은명이 내다보니 웬 낫모를 사나이가서서잇다가

「저ㅣ부인을 잠간뵈러왓습니다 저는 전에 면서기다니든 강윤호라고합니다」하고말하니 은명은 어물어물하며

「네ㅣ」하고 대답할뿐이엇다。

「부인께서는 저를 모르시지마는 저는 부인을 늘뵈고잇습니다 그런데 요새 어떠케나 지나십니까」

「네ㅣ 그저그러케지냅니다」

「좀 그동안이라도 와서뵈겟지만 식소사번하닥에 베르고베르다가 왓습니다」

「네ㅣ」

「그런데 오늘온것은 댁에 고채골때문에 왓습니다」

은명은 그제서야 가슴이 뜩금하엿다。 그러지안혀도 날마다 걱정이 그것이엇다。 빗은 만코 갑흘길은업고 하여튼 그아저씨라는이를 오라고해서 누구에게 빗을어덧스며 기한은 언제이고 이자는 어찌되며 도할수업스면 가대를팔어서 정리를하든지 좌우간 하여야겟다고 몃번 오라고 편지하엿스나 종무소식이어서 날마다 애태며 기다리든판이엇다。

「네그럼 댁에서빗을 주섯는가요」하고 은명은 악가보다 부드럽게 말하엿다。

「네 제가소개는햇지만 돈은판사람이냇습니다」

하고 윤호는 버슨놓월모자를만지적거리며 말하엿다。

「누구신지요 어동내어른이겟지요」

「네 그러쿠말구요 아마、아실걸요 곽래식씨라고!」

윤호는 이러케말하고 입가에배앗가튼 웃슴이 꿈틀하다가말고 은명을 몰그림이 처다보앗다。

「네? 곽래식씨에요?」

은명은 소스라치게 놀래엇다。 배앙을발든것보다 더놀라웟다。 은명은 입술을 꼭깨물엇다。

「네ㅣ그때대에서 몹시곤란하다고 부인의 아저씨되시는 그분이 제게 사정을하기에 사방으로 구해보니 어듸 이촌에 그런대금을될만 예잇소하고 내줄만한 사람이 잇습니까 그래도 곽선생한테가면 잇슬려지하고가서말하니 참사정이 딱하다고동정을하시면서 선듯 승락을하시겟지요 참어떠케고마우신 어른인지 저는그만눈물이다 낫습니다。그분아니면 참창레도 못모시고 대에서 큰창피를당하실번햇습니다」

낫이뜨듯한지 얼굴을끔직거렷다。

은명은 기가 딱 막히엇다 그래서 늘 거정하엿다는것과 자기는 전혀 모르고 그아저씨를 오라고햇스나 그뒤로도무지 볼수업고 길로나가까우면 할텐데수백리 먼곳에잇스니 가볼수도 업고하엿더는 사정이야기를 대강하엿다 윤호는 이야기를 대강하엿다 윤호는 조금언섬을돕피며

「글세 그것은 댁에 사정이고 인제와서도쓰신 본인 도장내주시고 문서내주신 당자가 모른다고만 방파맥이를 하신다면야 그게말이됩니까。부인께서도 이러케말하면 실례가될른지 모릅다다마는 한두살먹은 어린아이가 아니시고 그런것저런것 다 아실만하신분이 그러케 무책임한 말슴을하서야 저편에선들 감정에감정이 더할뿐이아닙니까。생각해보십시요 그러켓나 안그럿켓나 길울막고 물어보아도 빤한 노릇이지 그게그러치안습니까 그래저편에서도 금쌀악이가튼돈울주고 못밧게되니 그대로 잇겟습니까 문제는대단히 와회되여가는모양입니다」하고 자기도 성이난듯이 날카롭게 말하엿다

은명은 그자리에 펄석 주저안저 울고십흘만치 기가막히엇다。청천에 벼락을 맛는것가탓다。

「그럼 어떠케 하면 조흡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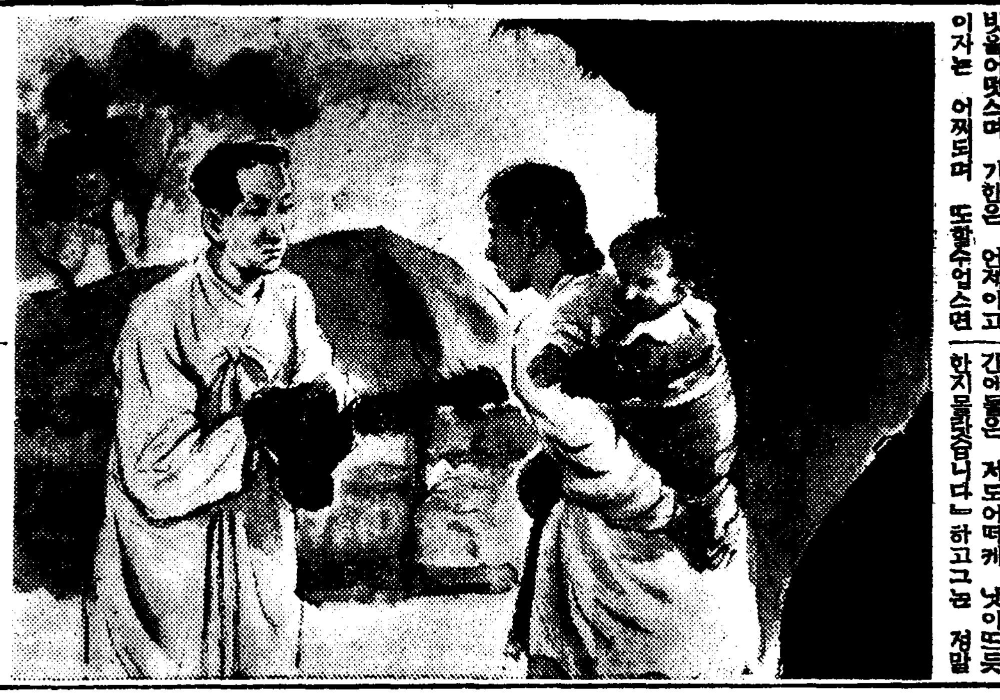
하고 은명은 썰리는목소리로물엇다。과연 은명은 은명이썰리고 눈에서 불이나는것가탓다。

윤호는 또도히 얼골을 토하는것이엇다。 은명은 상기된 얼골을 숙이고잇슬뿐이엇다。 윤호는 한번 기침을하고 속을 삭킨뒤에

「그런데 저도 그동안 여기저기 타관으로 돌아다니다가 일전에와서 곽선생을 맛낫니 성이나서 야단을 하겟지요」하고 무슨 큰 사건이나 말하듯 호들갑을떨엇다。 물론 그가 어데로 다니다가 왓다는것은 거짓말이다。 은명은 깜작놀래어

「왜요?」하고 물엇다。

「글세 그처럼 사정을 돌보아 이자도 받하게할뿐외라 그만한 대금을 돌려주엇는데 갓다가 쓸때는 요긴히 쓰고、그뒤는 일언반사업스며 원 고맙다는말한마듸업고……그건 그러타하드라도 기한이 지나도록 본전은커녕 이자한푼안가저오고 또 그것도 못가저온다는 말이나 잇스면 좃켓데 그러치도안코 대단히 감정이 나섯드군요 원 중간에들은 저도어떠케 낫이뜨듯한지몰랏섯습니다」하고그림 정말



謹賀新年

哈爾濱

哈爾濱道外太古五道街 合資會社 哈濱長野汽車公司 金富成 電話二五一四番

哈爾濱道裡水道街一九 北滿産業組合 工場 哈爾濱北馬路二七 電話六八一四番 倉庫 哈爾濱北馬路二四 電話二二九五番

濱北線宋家站前 精米製材 海陸物産 委托販賣 朝日商會 主任 玉明淳 財務部 張炳國 精米製材部 白應浩

濱江省慶城縣警察署 勤務 李正麟

慶城 朝鮮人民會

濱江省慶城縣十字街 大興當 主 金完碩

濱江省慶城縣西大街 慶豐號商店 田昌洛 金夏永 許萬珞 文致秀

鐵驪 朝鮮人民會

在綏化安全農村 朝鮮總督府派遣員 黃義明

在哈爾濱日本總領事館警察河溝派遣所

在綏化安全農村 [illegible] 孟俠吉

濱北線宋家站交 綏化安全農村 尹商台

哈爾濱 朝鮮人民會

協助會本部

哈爾濱 金融會 電話四一八三番

哈爾濱 無名氏

哈爾濱北安街一九 黃弼醫院 院長 黃漢弼 電話三六四八番

哈爾濱中央大街九八 舒蘭煤鑛公司 許一鶴 電話三二〇五八番

哈爾濱道裡買賣街一四一 食道園

哈爾濱 朴英才 電話五五一七番

哈爾濱 安胤梧

哈爾濱承德街四 東豐泰精米所 朴明鎬 電話六二三九番

濱江省慶城縣 金夏永

濱江省慶城縣警務局 周昌奭

濱江省慶城縣 慶八農場 代表者 李鳳永

濱江省慶城縣十字街 大東旅館 主 李英植

濱江省慶城縣 文致秀

濱北線海北鎭東大街 海陸物産委托販賣精米所 滿大米廠 代表者 鄭駿秀

濱北 普通學校

濱北 朝鮮人民會

龍江省拜泉縣三道鎭 三和米廠 金秉植 玉明善 張鳳俊

濱江省阿城縣城裡 商務會

濱江省慶城縣東門裡 金一峰

濱綏線 帽兒山保甲事務所 職員一同

哈爾濱 殖産貯蓄會

濱江省慶城縣十字街 朝鮮料理 金星館 主 楊振燮

濱江省慶城縣西陽大街 滿鮮旅館 主 朴應一

慶城縣 朝鮮人民會 評議員 全明奎

濱江省慶城縣東大街路北 公信精米所 主 金永濟

濱江省慶城縣十字街 濱江旅館 主 [illegible]

鐵驪 朝鮮人民會 副會長 崔友由

鐵驪 朝鮮人民會 評議員 朴[illegible]

濱北線宋家站交綏化安全農村 博愛醫院 院長 崔東煥

濱北線海倫縣北二道街 白滿病院 院長 金德勳

濱北線海倫縣南大街 海倫朝鮮人民會 會長 安秉燦 副會長 李善柱 理事 朴淳基

信昌號 主 申鉉祥

海北鎭 朝鮮人民會

濱北線海北鎭 善牧農場

濱北線海北鎭 九井子農場

哈爾濱道外許公路八〇 三民號 電話五〇九二番

哈爾濱道外納化街 北滿醫院 院長 李鍾朝 電話九二二四一番

哈爾濱道外太古九道街 永豐泰精米所 電話二〇一〇番

哈爾濱西馬家溝文昌街一三八 金鼎九 電話六四四二番

濱北線綏化縣城裡 哈爾濱金融會 綏化支所

濱北線綏化縣西二道街 北滿興農公司

濱北線綏化縣西二道街 精米業 金泰商會

濱北線宋家站交綏化安全農村 農務協聯合會 職員一同

濱北線宋家站交綏化安全農村 普通學校職員一同

濱北線宋家站交綏化安全農村 自衛團員一同

在綏化安全農村 農務協聯合會 任性宰

濱北線宋家站交綏化安全農村 振興商店 主 朴昌鎬

濱北線海倫縣東大街 海北米廠 池有成 李善柱

濱北線海倫縣西大街 福成號 主 朴松圃

濱北線海倫縣 海倫普通學校

濱北線海倫縣東大街 濱北醫院 院長 金東煥

海北鎭 農務契

濱北線海北鎭 朝鮮人民會 副會長 玄秉錫

濱北線海北鎭 善牧普通學校

濱北線海倫縣第五區第一保 善牧村甲

濱北線海北鎭 朝鮮人民會 會長 鄭駿秀

濱北線海北鎭 九井子普通學校

海北鎭普通學校校長 鄭義極

河北 自衛團員一同

濱江省阿城縣 聚源昶普通學校

哈爾濱民會 北滿産業組合長 金汝伯 電話五三五一番

哈爾濱安國六道街 特産貿易 四井商會 電話六四三一番

哈爾濱斜紋街七五 大福호텔 電話六六三四番

哈爾濱外國七道街二四 泰平旅館 電話七二二二番

哈爾濱道裡田地街 朝鮮旅館 電話七〇六一番

哈爾濱道裡田地街 林家參業部哈爾濱代理店 高麗人蔘社 電話七〇六二番

哈爾濱石頭道街 朝鮮冷麵屋 電話六二三八一番

哈爾濱田地街二 豐泰號 張京俊 電話七〇八五番

哈爾濱道裡田地街 高麗食堂 主 車淑仁

哈爾濱柳町 石元旭 電話六六二七番

哈爾濱道裡[illegible] 明信紹介所 金[illegible]源 電話七六六一番

哈爾濱柳町 吳在源 電話六六二六番

哈爾濱柳町 金賢德 電話五一六五番 六三九〇番

哈爾濱 金一元

哈爾濱道裡沙曼街 大東醫院 電話六一四八番

哈爾濱中馬路 日出精米所 金祥來 電話五八七一番

哈爾濱八站南安街一 玄米精白米調製及穀物貿易委托販賣 三江號 電話五〇七四番

哈爾濱八站 三益精米所 電話七三九〇番

哈爾濱承德街一一〇號 慈惠醫院 劉宗漢 電話七二三八番

哈爾濱承德街 新京樓 電話三二六四番

哈爾濱長春頭道街 三省堂藥房 主 車龍淵

哈爾濱道外北頭道街 濟世醫院 金斗鋼 金殷鋼

哈爾濱許公路六八 穀物及海産物 朝鮮物産商會 主 車德益 電話七一九六番

濱江省阿城縣 聚源昶 朝鮮人民會

濱江省木蘭縣城裡 金東勳

濱江省 阿城縣農務會

濱江省阿城縣城裡 協和會

濱江省阿城縣城裡 吳昌守

濱江省阿城縣城裡 池源植

濱江省阿城縣城裡 朴承福

濱江省阿城縣城裡 徐甸洛

濱江省 阿城普通學校

濱江省阿城縣城裡 姜信祖

濱綏線 帽兒山民會長 帽兒山普通學校長 白雲鶴

濱綏線二層甸子 普通學校 白玖鉉 李鳳大

哈爾濱石頭道街一四ノ四 仁川食堂 電話七六七六番

哈爾濱石頭道街 鮮一號冷麵屋 主 林仲金 電話五一六〇番

哈爾濱柳町 金泉館

哈爾濱田地街三九ノ四 崔商勛 電話六四二〇番

哈爾濱承德街一〇八 平壤旅館 主 朴元珍 電話七二三八番

哈爾濱承德街 根本堂藥房

哈爾濱桃花巷 松江樓

哈爾濱道外染坊胡同 東海樓

哈爾濱承德街三九 聚雲亭 主 崔周太

哈爾濱許公路一一四 東京堂藥房 電話五〇四一番

哈爾濱許公路八四 北滿勸農公司 金書鋼

哈爾濱道外富錦一道街 北産洋行 朱善華

哈爾濱馬家溝 林碧山

慶城普通學校校長 金東河

濱江省慶城縣城內 中央醫院 院長 金宗文

濱江省慶城 慶義館 主 張益善

濱江省慶城縣南二道街 長春館 主 張致浩

綏化朝鮮人民會 綏化普通學校

濱北線綏化西大街 朝鮮醫院 院長 辛康燕

濱北線海北鎭東大街 義成當 主 劉成根

濱江省 阿城縣教育會

濱江省阿城縣城裡 永光商會

濱綏線阿城縣城裡 鄭萬守

濱綏線帽兒山 阿片零賣所

濱綏線 帽兒山稅捐局

濱綏線帽兒山 金城當

濱綏線帽兒山 河永喆

濱綏線二層甸子警察署 金東麟

濱綏線二層甸子 許在錫

濱綏線二層甸子 柳永雨

哈爾濱懷德縣市大嶺哈 農務契 契長 申俊平

濱綏線二道河子 裵善祚

濱綏線二道河子 朱榮華

濱綏線二道河子 白日[illegible]

濱綏線二道河子 金孝[illegible]

濱綏線平山站 日鮮滿蒙[illegible]

哈爾濱[illegible] 電話[illegible]

廣州

廣州面巖山里 黃實鑛山

廣川驛前 寶岩鑛山 曹秉粲

廣川驛前 朝鮮料理 富春館 主 金順玉 藝妓 金綠珠 金花中仙 金明花 金眞紅 朴蓮心

廣川驛前 廣南藥房 盧載喆

京南線廣川驛前 青工舍

洪城郡鵝項面新谷里 新谷釀造場

保寧郡周浦面馬江里 鑛業 柳廣浩

保寧郡川北面新竹里 新竹釀造場 李弼珪

廣川驛前 德潤商店

廣川驛前 興一鑛業 金孝起

廣川驛前 千德精米所

廣川驛前 支那料理 福聚園

廣川面甕岩里 高海順

廣川驛前 廣川俱樂部

廣川驛前 平和商店 李手林

廣川驛前 影美堂寫眞館

廣川驛前 具禮元

廣川驛前 六合自轉車店 黃致寧

廣川驛前 錦南木工所 申益秀

廣川驛前 貨物自動車部 洪鍾喆

廣川驛前 東一釀造場 柳東秀

廣川驛前 東西木工所 禹聖根

廣川面新津里 李康緖

廣川驛前 錦東商會

洪城郡洪東面花新里 金昌煥

洪城郡長谷面佳松里 金世煥

廣川驛前 代書業 兪春植

廣川驛前 南昌旅館 朴貞淑

廣川驛前 天佑洋服店

廣川驛前 李錫九

廣川驛前 日鮮樓

廣川驛前 半島寫眞館 崔舜錫

定州

京義線定州驛前 ㊍運送部 昭和旅館 電話二九番

定州邑會議員 金夢駿

長湖院

煙草專賣局長湖院販賣所長 孟文永

朝鮮料理 大興館 主 白點奉

朝鮮料理 海東館 李孝順

蔘泉痰藥、神秘丹、代理店 三信堂藥院 全弘基

泰華釀造場 李命載

張柱琓

興上

本籍定平郡高山面興峰里三百十五番地 現住所咸州郡朱地面興上里二百四十番地 司法書士 李國鉉

定平郡高山面興峰里 張弘成

唐津

唐津郡松嶽面全佳里 有志 李晩求

唐津郡高大面 職員一同